

# 화두는 '국민 행복'... 양자구도, 51대 49 싸움

## 정치

### 김행이 본 12월 대선

2007년 정해(丁亥)년은 600년만에 돌아온 '황금돼지해'라고도 한다. '황금돼지' 해의 절정은 누가 뭐래도 12월, 대통령선거다. '황금돼지' 상상에 나선 대권 주자들, 그리고 막후세력들. 과연 누가 살아남고 누가 도태될 것인가. 플레이어들을 중심으로 관전해 본다.

####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적임자는?

관전에 앞서 경기의 흐름부터 살펴보자. 2007년 대선은 과연 어떤 '시대정신'을 갖고 출발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난 10년간 통치해온 부패하고 무능한 좌파정권에 대한 국민의 퇴출명령'과 세계적 흐름으로 몰려오는 '신자유주의 물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다. 현재까지의 각종 여론조사가 이런 민심의 도도한 흐름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런 '시대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다. 즉, 국민들의 '행복'이 정치적 화두가 될 것이다. 과연 누가 '행복'이라는 시대정신을 닦아낼 것인가.

2007년 대선도 결국은 양자구도로 갈 것이다. 여권은 우여곡절 끝에 단일후보를 내 놓을 것이다. 그러면 51대 49싸움이다. 이 싸움판이 만만할 리 없다.

이명박 전시장장은 지금까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차기 대통령 당선 1순위다. 지지율이 40%를 넘었다. 그의 지지율은 한나라당 불모지인 호남에서도 20%가 넘는다. 그러자 바로 치고 나왔다. "호남이 DJ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무릎을 칠 정도의 타고난 순발력과 정치적 감각이다.

그의 최대 강점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 보인다. '현대그룹 신화'의 주인공, 성공적인 서울시 경영 등의 이력이 그를 돋보이게 한다. 6월에 있을 한나라당 경선까지 지금의 추세를 밀고 갈 수만 있다면, 그는 차기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다.

그러나 이회창 전 총재 때문에 두 번의 고배를 마신 한나라당은 경선 전 '인물 검증'을 시도할 것이다. 병역, 재산, 여자 문제 등 모든 루머들을 까발리고 따져 줄 것이다. 언론도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전시장장이 승자가 될지, 상처투성이의 패자가 될지가 중요 관전 포인트다.

#### 이명박 당분간 대선전 주도

박근혜 전 대표의 현 지지율은 이명박 전시장장의 절반 수준. 그러나 '후보 검증'이라는 잣대에서 보면 가장 안전한 후보라는 점이 큰 강점이다. 게다가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부러워 할만한 '스타성'까지 갖추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도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인 '애국 처녀' 이미지로 극복할 것이다. 말이 간결하고 원칙주의자라는 점도 실수에 노출될 확률을 줄여준다.

그녀의 최대 무기는 당내 장악력. 탄핵돌풍 이후 한나라당을 최악의 상태에서 구해냈고, 그후 모든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왔다. 그런 그녀지만 현재 처한 입장은

쉽지 않다. 경선 직전까지의 여론조사에서도 이 전시장에게 계속해서 밀리면 당내 장악력도 모래탑이 된다. 결국 그녀의 초반전은 '지지를 끌어올리기'에 역량을 집중할 수 밖에 없다. 그간의 '신비주의' 전략에서 벗어나 민생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최대한 노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신비주의' 전략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능력검증'이라는 예봉이 그녀를 향할 것이다.

#### 박근혜 '검증 잣대' 안전한 후보

여기에 여성이라는 핸디캡도 넘어야 할 산이다. 박 전대표가 계속해서 여론조사 2등에 머무르면 손학규 후보와의 연대도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사실 '박근혜 + 손학규'는 보수와 진보, 자질과 능력, 여와 남이라는 절묘한 조합으로 최상의 카드가 될 수도 있다.

한나라당 '빅3'중 한명인 손학규 전 지사의 현재 지지율이 5%도 안 된다. 대중성과 스타성이 약하다는 것이 최대 약점. 그러나 여전히 기대준다. 특히 여권후보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나서게 되면 더욱 그렇다. 왜냐. 정운찬 후보는 충남 공주출신이다. 지역구도가 현실인 한국정치에서 정운찬은 호남과 충청의 최대 주주로 부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명박과 박근혜는 영남 후보다. 자칫하면 영남고립구도가 된다. 역대선거가 입증했듯, 영남고립구도로는 대선필패다. 서울과 경기도 중요하다. 이 곳에서 과반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충청도와 이웃한 경기도의 민심의 중요하다. 이 점에서 경기도 지사출신인 손학규는 승부수를 띄울 것이다. 낭망한

## 이명박, 한나라 후보 못돼도 탈당 않고 권력 분점 시도할 듯 박근혜, 지지율 안 오르면 손학규 前지사와 연대 가능성 고 건, 호남 지지율 1위 고수...3~4월께 신당 창당 승부수

얘기가 아니다. 게다가 정운찬은 진보 경제학자다. 그는 주류층과 진보층을 묶어 낼 수 있다. 이 점에서 손학규는 정확한 맞상대다. 그는 한나라당 후보들 중 유일하게 진보 개혁적인 지식인층을 묶어 낼 수 있는 후보다. 게다가 한나라당 후보라는 간판으로 보수층까지 아우를 수 있다.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다는 의미다.

여전히 호남에서는 고건 전 총리의 지지율이 1위다. 그런 그가 마지막 승부수 앞에 내던져졌다. 노 대통령이 지난 12월 21일, 고 건을 '실패한 인사'라며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그러자 전국 지지율이 한자리 수로 떨어졌다. 물론, 호남에선 여전히 '대안 없는' 강세지만, 이전 어떤 정치세력도 그를 엿잡고 선뜻 나서기 힘

들게 됐다. 그럼에도 정치일정은 이미 선언한 바 있다. 올해 3~4월 중도세력을 아우르는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던 것이다. 그에겐 승부를 던질 마지막 마지막 노선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 손학규 진보개혁이미지 강점

이미 지지율엔 빨간 불이 켜졌다. '호남'유권자들만의 결집은 고립구도만 강화시킬 뿐이다. 새로운 '제3 후보'를 내세우려는 신당과 또는 열린우리당 사수와 양쪽의 공격도 견뎌야 한다. 특히 노대통령의 공격은 더욱 집요해 질 것이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지는 못해도, 안되게는 할 수 있는 연연한 현직 대통령이다.

결국 어려움에 봉착한 형국인데, 문제는 추진력이다. 그가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라도 범여권의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한다면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본선에서 낙선하면 야당 총재라도 하겠다는 권력의지를 보여야만 한다. 즉, 여차하면 호남의 맹주라도 자처해야, 2008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호남 쪽 선량들이라도 모인다. 아마도 그의 정치인으로서의 마지막 시험대는 4월 25일 있을 무안·신안의 국회의원 재보선에서의 행태일 것이다.

여권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정운찬 전 총장은 검증되지 않았다. 그래서 리스크도 크지만 가능성도 높다. 잘만해 낸다면 현재 후보 부재 상황인 여권의 위기를 단숨에 극복할 수 있는 '벤치 카드'다. 게다가 지금

#### 김행

▲서울 출생(47) ▲연세대 대학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전 한국사회개발연구소 조부부장 ▲전 중앙일보 조사 전문 위원 ▲전 한국종합예술대학 강사 ▲전 서울시 여론조사본부 자문위원 ▲전 국민통합21 대변인 ▲(주)넥스스투자 고문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계 없습니다



까지의 행보로 보자면 정치적 감각도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2007년 12월의 대선 스케줄에 맞춰 필요한 시점에 정확한 정치적 연사를 구사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태풍의 눈'에 접근하고 있다. 특히 알권은 "나는 디시시브(decisive)한 사람이다. 나는 승산 없는 싸움은 하지 않는다."며 사실상의 대권출마 선언을 한 점. 고 건의 우유부단에 대한 반면 교사인가. 이런 한 걸음 더 나가 "총청은 나라의 중심"이라고 했다. 승부처를 정확히 아는 만만찮은 정치인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 정운찬, 리스크 만큼 가능성 키

그는 호남과 충청을 기반으로, 진보 개혁적 색채로 서울과 중부권을 공략해 나갈 것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좌파정권, 마찬가지로 무능하고 부패한 보수, 골통세력에 대해서 명확한 전선을 구축할 것이다.

결국 그는 신당파든 열린당 사수파든 관계없이 범여권의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탄생하는 여권의 최종 주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단, 전략상 너무 일찍 노출된 것은 아닌지, 혹독한 검증도 동시에 그를 기다리고 있다.

정동영 전 의장의 최대 약점은 전주 출신이라는 점이다. 노대통령이 정확히 지적했다. 대한민국 정치형상, 호남출신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 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예외였다. 그는 DJ연합을 통해 충청을 엮어냈고, 평생을 통한 민주화투쟁으로 민주개혁세력을 묶어 낼 수 있었던 전무후무한 정치인이다. 정동영은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본인의 위상을 대권급으로 키울 수는 있었지만, 최종 주자까지 가기에는 그동안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고 남아있는 길도 너무 멀다.

김근태 의장은 참 난감한 카드다. 만약 한나라당으로 권력이 넘어가면 차기 총선에서 지역구인 서울 도봉에서도 당선을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노 대통령에게 '정치에 손 떼고, 국정에만 전념하라'는 그의 일갈이 공허해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힘의 논리에서 완전히 배제된 카드란 말이다. 그렇잖아도 한 자리 수 지지율에 허덕이는 열린우리당에서 또 쪼개져 신당파로 갈라져 나왔을 때 그 수장으로 서의 그가 가질 정치력의 크기는 '찾남 속의 돌개바람'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